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쿠바

I .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쿠바공화국(República de Cuba)
면적	109,884 km ² (자료원 : EIU, 2022 기준)
수도	아바나(Ciudad de la Habana)
민족(인종)	
언어	스페인어
종교	가톨릭교 85%, 그 외 신도교, 유대교 등, 무신교(3.9%)
기후	○ 아열대 기후 ○ 12~2월: 18~27℃, 3~11월: 24~32℃ ○ 건기: 11~4월, 우기: 5~10월
국가원수	○ 대통령 : 디아스 카넬(Miguel Diaz-Canel) - 취임일: 2018년 4월 19일 * 2018년 4월 19일 국가평의회 의장으로 선출, 이후 헌법개정을 통하여 2019년 10월 10일 부활한 대통령제하에 신임 대통령으로 선출 - 임기: 5년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교민 수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협정 없음	2019-01-01	없음	미수교국

한국교민 수

30 명 (자료원 : KOTRA 아바나 무역관)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쿠바는 시리아와 더불어 191개 UN회원국 중 유일하게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다 (북한 제외, 코소보는 미수교국이나 UN비회원국). 1949년 7월 쿠바는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바 있으나 1959년 1월,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우리나라와의 교류를 단절했다. 반면 1960년 쿠바와 북한이 수교하고 1961년 양측이 상주공관을 개설했다.

* 바티칸시국, 국제도는 UN회원국은 아니나 수교국

현재까지 쿠바와 북한은 공산주의 이념 동지국가로서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쿠바와의 수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쿠바의 북한과의 특수관계로 인해 아직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11월에는 현 대통령(당시 국가평의회 의장) 디아스카넬이 북한을 방문하여 양국 간 전통적 혈맹 관계를 재확인하였다.

최근 들어 우리와도 경제 및 문화교류를 중심으로 관계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쿠바는 대한반도 정책과 관련 북한과는 군사, 정치적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한국과는 경제협력 관계를 추구하는 투트랙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6월 아바나에서 제7차 카리브국가연합(ACS) 정상회의에 옵저버로서 참석해 한-쿠바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으며, 2018년 5월에는 아바나에서 개최된 제37차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총회에 외교부 장관이 참석, 양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2018년 9월에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 양국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양국 간 교류 및 협력 증진, 한반도 정세 논의하는 등, 양국 간 관계 개선 노력을 지속해서 전개하고 있다.

경제

양국 간 정치적 미수교 상태이나, 쿠바는 우리나라를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KOTRA는 1996년부터 10여 년간 아바나 국제박람회에 정기 참가하여 신뢰를 구축한 이후 2005년 9월 12일 무역관을 공식 개설해 현재까지 유일한 정부기관으로 현지에서 활동 중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는 자동차, 가전제품, 타이어 등 대기업 제품들이 제3국 에이전트를 통한 간접교역 형태로 쿠바시장에 진출

하고 있다. 양국 간 산업협력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전력분야로 쿠바의 에너지 혁명 추진 시기에 현대중공업이 컨테이너형 디젤 발전기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2005~2010년간 총 464대(888MW)를 공급하였고 이는 쿠바 전체 전력시장의 약 30%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또한 삼성, LG, 대우 등의 경우 쿠바 가전 및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 기아차도 2014년까지 연간 3천 대 이상 판매고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중국의 장기저리 차관 공세로 자동차 수입의 상당 부분이 중국산으로 대체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렌터카 시장 등에서 높은 인기를 구사하며 현대차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였다.

한-쿠바 간 외교관계는 수립되지 않았으나 민간, 정부 간 경제협력 채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5년부터는 기재부 주관으로 쿠바 정부와 개발협력공유사업(KSP)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쿠바의 역점산업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공유하는 것뿐 아니라, 이후 유휴장비 이전, 기술학교 운영 등 CSR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KSP 사업은 쿠바언론 등에도 지속해서 보도되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2년에는 쿠바의 재활용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으로, 향후 KSP를 통한 지속적인 지식교류를 계획중이다.

2016년에는 양국 경제계 간 민간경제협력위원회가 구성돼 기업 간 협력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다.

2022년 7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쿠바 수출액은 1,213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163% 상승하였으나 일부 특이치에 따른 것으로, 전체 수출은 2017년 7,078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쿠바는 2022년 기준, 수출대상국 중 153위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2022년 대쿠바 수입액은 총 451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6.2% 하락하였으며, 7개월간 762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2021년 무역수지는 1,843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문화

쿠바에는 2013년 이후 쿠바 국영TV에 '내조의 여왕' 등 한류드라마 5편이 방영되면서 한류 바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9년 6월 수년간의 공백 이후 한국 드라마 '공주의 남자'를 방영하였으며, K-POP이 한류열기에 불을 지피면서 쿠바내 한류문화 동호회 '아르코'(ArtCor)의 회원은 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르코는 자체 한류행사 개최 등을 통해 한류의 전국적 확산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바나 국제박람회에 국가관으로 매년 참가 중이며, 이외에도 쿠바 국제도서전, 아바나 비엔날레, 아바나 발레페스티벌 등에 참가하고 있으며, 쿠바 공연단의 방한행사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중단되었던 아바나 국제박람회(FIHAV)에 2030 부산엑스포 홍보관을 설치해 쿠바내 부산엑스포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2022년 8월, 쿠바 아바나에 최초의 한국문화센터 및 한글학교가 오픈하는 한편, 국내 프로야구(호세 페르난데스, 아리엘 미란다, 오드리 사머 데스파이네, 야시엘 푸이그) 및 프로배구(레오나르도 레이바) 등의 스포츠에서 쿠바선수들이 활약하는 등, 양국 간의 문화교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	2.2	-0.2	-10.9	1.3	
명목GDP (십억\$)	100.1	103.4	107.4	22.7	
1인당 GDP (PPP, \$)	13,755	13,998	12,629	13,401	
1인당 명목 GDP (\$)	8,824.2	9,125.9	9,477.9	1,350.5	
정부부채 (% of GDP)	53.5	56.7	65.3	147	
물가상승률 (%)	6.9	5.6	11.9	152	
실업률 (%)	1.7	1.2	1.4	2.8	
수출액 (백만\$)	2,742	2,392	1,783	2,058	
수입액 (백만\$)	11,527	9,937	7,230	8,431	
무역수지 (백만\$)	-8,785	-7,545	-5,447	-6,373	-
외환 보유고 (백만\$)	10,853	9,753	8,253	7,203	
이자율 (%)	2.25	2.25	2.25	2.25	
환율 (자국통화, 대미환율)	1	1	1	24	

<자료원 : EIU, 쿠바중앙은행, World Bank>

나. 경제 동향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는 1989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구소련의 경제 및 군사원조 중단(당시 전체 교역량의 80% 이상을 구소련 블록에 의존)을 경험하면서 경제 위기를 맞이하였고, 특히 1992년 미국의 소위 토리첼라-그레이엄 법안으로도 잘 알려진 '쿠바 민주화법' 제정을 통해 대쿠바 금수조치가 강화되면서 1990년대 초반 소위 특별시기(Periodo Especial)로 불리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다. 이후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시장경제원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외국인투자를 개방하기로 하고 1993년에는 독립채산제 실시, 사적이익

용인, 농산물 자유시장이 허용됐다. 1995년에는 외국인투자법이 개정돼, 투자부문 개방이 확대됐다.

그러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니켈 등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전통품목 수출액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었으며, 이에 쿠바정부는 경제난 타개 차원에서 배급물량 축소, 국영부문 축소 등의 조치를 통해 5만 명 정도에 불과하던 자영업 일자리를 약 60만 명(21년 6월 기준)까지 확대함에 따라 민간경제가 점진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다. 2011년 4월 공산당전당대회시 발표된 향후 경제운용 기본 지침인 '리네아미엔토(guideline)'에 근거해 기존의 시장경제 조치를 강화하며, 자영업 업종 확대, 중고 자동차 매매 허용, 내국인간 부동산 거래 자유화, 자영업자 소액대출 허용 등 점진적인 개혁개방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경제 확대에 따른 세금제도 정비 필요성에 따라 2012년 11월 새로운 세제운용 지침을 마련했다. 쿠바 정부 입장에서는 자영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 조치를 필요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으나, 급격한 자본주의 유입을 경계하기 위해 세제 정비, 자영업 허가수 제한 등을 통해 자영업 확산 완급 조절을 병행하는 셈이다.

쿠바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20억 달러의 외국인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하며,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본격적 외자유치를 위해 2013년 9월 마리엘 경제특구 개발법을 채택한 데 이어, 2014년 3월 외국인투자 개정법 118조를 발표, 관련 외자유치 행정령인 대외무역부 행정령 128 및 129조, 중앙은행 행정령 46 및 47조, 고용사회안전부 행정령 16조 등 종합적인 외자유치 활성화 법제를 마련했다.

2014년 1월 마리엘 경제특구 단지가 가동을 시작, 대대적인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활동에 나섰으나 고용 자유화 문제가 미해결 및 인프라 미비 등으로 인해 쿠바 내 기존 외국인 업체를 제외한 신규기업 진출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2022년 9월 기준, 마리엘특구에는 21개국 소재의 기업으로부터 총 61개의 프로젝트(규모 30억 달러)가 승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투자 승인이 되어도 실제 이행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있고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가시적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쿠바정부는 2019년 2월, 헌법개정 이후 43년 만에 개헌을 시행하였으며, 개헌안은 기존의 계획경제 및 사회주의 근간은 유지하되, 제한적 사유재산의 인정,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등, 소련 붕괴 이후 나타난 쿠바사회의 체질변화를 성문화한 진보적 조치로 평가된다. 이후 2020년 8월, 기존의 123개 분야에 국한돼 허용했던 자영업 가능업종을 전면 폐지할 계획임을 발표하며 민간부문의 성장을 추진하였다.

2021년 1월에는 1994년 이후 지속되어왔던 이중화폐제도를 단일화폐(쿠바페소)로 통합하는 화폐 단일화 정책을 통해 공공부문의 재무불건전성 및 경제 왜곡현상 안정화를 꾀하였으나 이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쿠바정부는 외환수급 확대를 통해 물가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인해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관광산업 및 전문인력 파견 등의 회복은 단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8월, 쿠바정부는 기존 자영업 허가에서 진일보한 중소기업 설립, 운영 및 규제에 대한 일련의 법안을 통과하며, 최악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경제 회생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롭게 설립되는 중소기업은 식품생산, 지역개발, 기술기반, 수출입 등 정부의 전략 육성분야에 대해 우대할 예정이나, 수출입의 경우 직접 수출입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쿠바 내 수출입 국영기업을 통한 간접적인 제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만 가능하며 제한적 시장주의 조치로 평가된다. 쿠바정부는 중소기업법을 통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 및 국가경제 기여를 기대하였으나,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지속됨에 따라 기업의 경제활동이 급속도로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

2021년 11월, 국제공항 운영 정상화 및 입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 수급 노력을 시작하였다. 특히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단체 관광객 유치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로 인해 2021년 기준, 전체 관광객의 25%를 러시아 국적 관광객이 차지하였다. 그러나,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항공사에 대한 서방진영의 영공 진입 불허 조치로 인해 러시아-쿠바간의 노선 운항이 중단되었으며, 이는 쿠바 관광산업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쿠바 경제 회복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상반기 호텔객실점유율이 14.5% 수준에 머물고 있어 관광산업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많은 전문가는 2021년 취임한 바이든 정부가 기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대쿠바 정책을 계승하며 양국 간의 화해 무드 조성 및 협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및 최우선 외교정책 등으로 인해 양국 간 관계 개선 여부는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지 않다. 다만 2022년 5월 바이든 정부에서 일부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내놓기는 하였으나 2022년 9월에 바이든 대통령은 적성국 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of 1917, TWEA)을 근거로 한 對쿠바 경제 제재(엠바고)를 1년 연장하는 조치에 서명함에 따라 단기 간에 급속한 경제제재 완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참고로 2022년 현재 쿠바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적성국 교역법을 적용받는 제재 대상국이다.

다. 경제 전망

쿠바는 2014년 12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선언 모멘텀을 계기로, 산업 전반에 활기가 살아나며 2015년에는 4%까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이후 최대 교역국 베네수엘라 경제위기, 니켈 등 주요 수출 원자재 가격, 허리케인 피해,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경제성장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대내외 부정적 경제충격 영향, 특히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10.9%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21년의 경제 성장률도 전세계가 회복하는 와중에 1.3%에 그쳤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 쿠바 제재 강화로 인한 사업환경의 악화, 최대 경제협력국인 베네수엘라의 경제위기로 급감한 교역량,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관광산업 붕괴 등이 그 이유로 손꼽힌다. 대내적으로는 국영중심의 비효율적 계획경제 고수, 자영업(중소기업) 성장제한, 이중화폐제도 폐지에 따른 인플레이션,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인프라 피해 여파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쿠바의 경제는 관광업 중심의 서비스산업 의존경제로 외부 취약성이 항시 노출되어 있다. 팬데믹 이전, 쿠바의 관광산업은 해외 의료 인력 파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외환 수입원이며, 총 GDP의 약 10% 및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영향으로 2014년 3백만 명 규모 관광객 수가 2017년 470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2018년부터는 미국 관광객 감소 여파로 성장세가 주춤한 상태다. 특히 2019년 6월 미국발 크루즈 선의 쿠바 입항 금지 조치로 인하여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특히 2020년 3월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은 약 7개월간의 국경폐쇄로 이어져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화유입이 급감한 상황에서 추진한 화폐통합은 특혜적 환율을 적용받던 생필품 수입 공기업에 급격한 영향을 미치며 정부의 강력한 가격 동결 정책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물가상승을 초래하였다. (2021년 152%, 2022년 30% 예상) 또한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국 내 생산성 악화 및 기초 생필품 등의 물자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족한 외화 유입을 위해 신설한 외국환 매장으로 주요 생필품 공급이 집중되며, 쿠바사회는 실질적인 달러화 경제권과 페소화 경제권으로 양분되었다.

쿠바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1) 미국의 대쿠바 및 대베네수엘라 제재 완화, 2) 고학력, 기술직 인력의 탈출을 막을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 3) 만성적인 인프라 투자부족 해소, 4) 민간기업 및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5) 관광산업 및 전문인력 파견 정상화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2022년 3.2%, 2023년 4.6%의 성장이 예상되어 2024년 이후에야 코로나19 확산 이전 경제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對쿠바 경제제재의 핵심인 미국 Helms-Burton 법안 제3조의 효력중지는 2022년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고 바이든 대통령 임기 후반부에도 가능 전망이다. 쿠바명망인구가 밀집한 미국 플로리다주는 대선 선거인단이 50개주 중 캘리포니아, 텍사스에 이어 3번째로 많고, 2000년 대선에서 공화당 부시 후보가 민주당 앨고어 후보에게 불과 537표 차이로 승리한 이후 각 선거마다 초박빙 양상을 보임가장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로, 현재 여당이 열세를 보이고 있는 중간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對쿠바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인다. 反쿠바정부 정서가 강한 쿠바계 인구가 153만명에 달해 선거때마다 쿠바계 득표를 위해 후보마다 쿠바제재 강화를 주요 공약사항으로 내세우고 있어 최선의 시나리오는 바이든 정부 1기 하반기에 쿠바제재를 완화하는 것이나, 만약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2024년말 차기 대선을 고려해 23년 내내 對쿠바제재가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상황 악화와 쿠바정부의 반정부시위에 대한 폭력적 억압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암울해지면서 최근 1년간 미국으로 탈출한 쿠바인이 역대 최고치 기록함에 따라 향후 쿠바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따르면 2021년 10월 이후 10개월간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적발된 쿠바인은 총 177,848명으로, 여기에 바다를 건너다 적발된 3,000여명도 추가하면 18만명을 초과한 것인데, 이는 1959년 쿠바혁명 이래 쿠바를 탈출한 연간 인원 중 최고치로, 1980년 마리엘 보트리프트 당시의 125,000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쿠바 전체인구가 1,100만명 수준임을 고려시 사실상 인구의 1.5%가 1년 만에 해외로 탈출한 셈이다. 이같은 쿠바국민들의 쿠바정부에 대한 '발로 하는 투표 (Voting with Feet)'는 특히 해외에서 더 높은 소득창출 확률이 훨씬 높은 고학력, 기술직,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쿠바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잠재력을 불가역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2022년 하반기 쿠바 최대의 이슈는 전력부족으로, 최대전력사용량 대비 30%가 부족해 산업, 가정 전반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부분의 발전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만성적인 인프라 투자 부재로 대다수의 발전설비가 노후화, 또는 사용연수를 훨씬 초과하였으나 외화부족 및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2021년 7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촉발한 것도 지

방의 장기간 지속된 정전으로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쿠바 정부의 강력한 진압으로 추가 소요사태는 없으나 전력상황은 이후로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479,976,864
2	스페인	135,231,809
3	독일	60,586,523
4	홍콩	52,686,617
5	키프로스	39,233,895
6	스위스	38,035,304
7	포르투갈	36,419,902
8	프랑스	31,530,568
9	캐나다	26,981,377
10	브라질	21,030,151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491,940,802
2	스페인	129,949,518
3	독일	65,452,286
4	네덜란드	56,000,676
5	키프로스	48,829,105
6	홍콩	46,890,352
7	포르투갈	39,501,030
8	스위스	38,858,645
9	캐나다	26,287,736

10	프랑스	26,141,299
----	-----	------------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471,933,795
2	스페인	110,559,756
3	인도	69,581,121
4	싱가포르	54,327,347
5	독일	50,329,539
6	스위스	49,246,529
7	포르투갈	43,254,652
8	벨기에	37,534,674
9	홍콩	36,783,586
10	키프로스	36,086,485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스페인	1,123,682,105
2	중화인민공화국	1,054,825,382
3	러시아	358,631,836
4	이탈리아	322,397,147
5	브라질	321,997,616
6	캐나다	318,215,130
7	독일	260,144,637
8	미국	254,229,218
9	프랑스	228,322,657
10	멕시코	224,463,335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스페인	984,480,366
2	중화인민공화국	789,648,290
3	이탈리아	324,596,928
4	미국	279,410,587
5	러시아	270,253,073
6	캐나다	267,894,617
7	브라질	249,253,375
8	네덜란드	224,875,874
9	아르헨티나	219,723,854
10	독일	211,880,307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스페인	659,906,716
2	중화인민공화국	477,024,123
3	이탈리아	209,608,996
4	브라질	195,142,548
5	캐나다	187,311,050
6	미국	172,059,133
7	독일	160,307,893
8	네덜란드	151,342,585
9	아르헨티나	136,763,677
10	프랑스	129,449,654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40210	시가(cigar) · 셔루트(cheroot) · 시가릴로(cigarillo)(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65,356,155
2	1701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208,110,835
3	750120	소결(燒結)한 산화니켈과 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179,592,549
4	220840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101,292,918
5	260800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72,376,383
6	030611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종 · 파누리루스(Panulirus)종 · 자수스(Jasus)종]	55,585,661
7	440290	기타	42,484,529
8	260700	납광과 그 정광(精鑛)	29,644,931
9	72072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이상인 것	26,101,198
10	030617	그 밖의 새우류	24,576,928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40210	시가(cigar) · 셔루트(cheroot) · 시가릴로(cigarillo)(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68,415,645
2	1701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183,194,463
3	750120	소결(燒結)한 산화니켈과 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134,045,654
4	260800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87,712,785
5	220840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85,919,858
6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53,957,692
7	030611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종 · 파누리루스(Panulirus)종 · 자수스(Jasus)종]	53,038,818
8	260700	납광과 그 정광(精鑛)	50,893,378
9	440290	기타	43,039,170
10	030617	그 밖의 새우류	21,064,415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40210	시가(cigar) · 셔루트(cheroot) · 시가릴로(cigarillo)(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37,143,581
2	1701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209,943,574
3	750120	소결(燒結)한 산화니켈과 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144,578,446
4	260800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77,868,038
5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70,291,866
6	220840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68,487,898
7	271019	기타	46,546,557
8	261610	은광과 그 정광(精鑛)	40,806,032
9	440290	기타	40,377,153
10	030611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종 · 파누리루스(Panulirus)종 · 자수스(Jasus)종]	40,317,034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020714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38,864,709
2	100590	기타	156,191,217
3	100199	기타	152,100,829
4	870210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만을 갖춘 것	98,332,914
5	851762	음성 ·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 · 변환용 · 송신용 · 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74,631,834
6	040221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72,441,827
7	870899	기타	61,057,889
8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55,805,597
9	150790	기타	53,527,169
10	2304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50,788,932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020714	절단육과 설육(脬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61,266,957
2	100199	기타	175,845,706
3	2304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67,209,437
4	100590	기타	145,545,952
5	040221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106,695,777
6	150790	기타	49,694,850
7	730890	기타	47,819,155
8	870899	기타	46,144,370
9	100630	정미(연마 · 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46,081,087
10	851762	음성 ·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 · 변환용 · 송신용 · 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39,581,820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020714	절단육과 설육(脬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44,339,594
2	100199	기타	136,224,483
3	100590	기타	135,308,268
4	040221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94,284,086
5	100630	정미(연마 · 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72,663,409
6	940690	기타	59,463,164
7	071333	강낭콩(흰 완두콩을 포함한다)[파세러스 불가리스(Phaseolus vulgaris)]	47,618,590
8	851762	음성 ·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 · 변환용 · 송신용 · 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43,696,826
9	730890	기타	38,421,867
10	870899	기타	28,935,481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표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8	59	7	52
2019	42	5	37
2020	21	10	11
2021	22	4	18
2022	12	5	7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다.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1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6152	철구조물	3	0	2
2	7461	선박	0	0	0
3	7111	원동기	2	0	2
4	7420	자동차부품	2	0	2
5	7251	건설중장비	0	0	0
6	4112	아크릴섬유	0	0	0
7	7522	수공구	0	0	-1
8	6172	주철	0	0	0
9	2262	의약품	0	0	0
10	2271	비누	0	0	0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2년 (8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6152	철구조물	5	0	5
2	7461	선박	2	0	2
3	7111	원동기	1	0	1
4	7420	자동차부품	1	0	1
5	7251	건설중장비	1	0	1
6	4112	아크릴섬유	1	0	1
7	7522	수공구	0	0	0
8	6172	주철	0	0	0
9	2262	의약품	0	0	0
10	2271	비누	0	0	0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1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6221	동괴및스크랩	0	1	-2
2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0	1	-1
3	0154	연초류	0	1	-1
4	0239	기타축산물부산물	0	0	-1
5	9210	그림	0	0	-1
6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0	0	-1
7	0157	주류	0	0	-1
8	0131	식물성유지	0	0	-1
9	0156	식물성한약재	0	0	-1
10	0151	커피류	0	0	-1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2년 (8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6221	동괴및스크랩	0	3	-3
2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0	1	-1
3	0154	연초류	0	1	-1
4	0239	기타축산물부산물	0	0	0
5	9210	그림	0	0	0
6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0	0	0
7	0157	주류	0	0	0
8	0131	식물성유지	0	0	0
9	0156	식물성한약제	0	0	0
10	0151	커피류	0	0	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의료기기		
HS Code		수입액('20/US\$백만)	
수입관세율(%)		대한수입액('20/US\$백만)	
선정사유	의료서비스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기초사회보장으로 지속적 장비공급 및 현대화 수요 발생		
시장동향	노후화된 의료장비가 다수여서 점진적 장비 교체 시행 중		
경쟁동향	일본, 독일		
진출방안	파이낸싱 제공, 원활한 기술지원 필요		
품목명 2	에어컨		
HS Code		수입액('20/US\$백만)	
수입관세율(%)		대한수입액('20/US\$백만)	
선정사유	관광업 호황에 따른 신규호텔, 민박업소의 에어컨 수요 증가		
시장동향	연간 30도가 넘는 고온으로 에어컨 수요 지속 발생		
경쟁동향	중국		
진출방안	호텔프로젝트 EPC업체, 슈퍼마켓 대상 집중 마케팅		
품목명 3	독립식 발전기 및 부품		
HS Code		수입액('20/US\$백만)	
수입관세율(%)		대한수입액('20/US\$백만)	
선정사유	쿠바의 전력난 지속, 한국산 브랜드(현대중공업) 인지도 제고		
시장동향	베네수엘라 원유공급 불안정으로 전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장비 현대화 수요 발생		
경쟁동향	독일, 중국		
진출방안	금융지원, 기술지원 강화		
품목명 4	식품가공기계.식품포장설비		
HS Code		수입액('20/US\$백만)	
수입관세율(%)		대한수입액('20/US\$백만)	
선정사유	쿠바는 중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식량 생산 증대, 포장산업육성을 통해 내수공급, 수출확대 추진 중		

시장동향	식품가공/포장설비 확충 추진 및 외국인투자 집중 유치		
경쟁동향	중국, 유럽		
진출방안	쿠바 농업부, 산업부 및 산하 공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추진		
품목명 5	핸드폰, 스마트폰		
HS Code		수입액('20/US\$백만)	
수입관세율(%)		대한수입액('20/US\$백만)	
선정사유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고기능 휴대폰 수요증가. 인터넷 사용자 증가		
시장동향	전국의 와이파이 핫스팟 및 모바일 데이터 사용자 확대, 쿠바인의 소득증가로 고급형 핸드폰 기기 유입 증가		
경쟁동향	중국		
진출방안	쿠바 기술 수준에 맞는 일반 보급형 핸드폰 수출 추진		

주: 쿠바는 품목별 수출입통계를 별도 발표하지 않아 정확한 자료 입수 불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호텔 등 관광시설 경영
선정사유	쿠바의 호텔은 국영이며, 국제적 수준의 노하우부족 및 자본 부족으로 해외전문경영기업과의 협업수요 증가
시장동향	단순 경영뿐 아니라 SW시스템, 가구, 소모품, 리모델링 등 자본투자까지 요구하는 추세
경쟁동향	스페인, 프랑스, 캐나다계 다국적기업들이 진출우세, 최근 동남아 자본 진출
진출방안	해외진출경험이 많은 우리 호텔 운영사를 중심으로 쿠바호텔 체인과의 사업협력 타진 필요
품목명 2	교육 콘텐츠
선정사유	쿠바인들의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에 따라 외국어 등 학습수요 증가
시장동향	쿠바의 교육은 공교육 중심이나, 소규모학원을 자영업으로 허용 중
경쟁동향	주로 자체 제작 콘텐츠 사용
진출방안	수요가 높은 영어 등 외국어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사교육(자영업)시장 진입 우선 추진 필요.
품목명 3	건설
선정사유	호텔신축, 주택신축 등 건설시장 지속 성장
시장동향	건설수요는 높으나 장비부족, 원부자재부족, 노하우부족으로 성장 폭 낮음

경쟁동향	쿠바진출 외국 건설사는 프랑스, 중국, 베트남 등 일부 기업에 제한됨
진출방안	쿠바건설업 진출을 위해서는 기진출 건설사와의 협력을 통한 프로젝트 수주가 안정적인
품목명 4	금융
선정사유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낙후
시장동향	국제적 수준의 금융시스템 미비로 비효율성 높음. 미 금융 제재에 따른 국제금융 시스템 편입 애로
경쟁동향	스페인, 캐나다, 베네수엘라 등 일부 국가 금융업 진출
진출방안	쿠바 주요 상업은행과의 금융 관계 구축을 통한 금융협업 및 진출 기반 점진 강화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ALADI(Asociación Latinamericana de Integración)	ALADI 회원국	1999-01-01	1999-01-01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Caribbean Community(CARICOM)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uba	CARICOM 회원국	2002-12-08	2002-12-08	
Joint Action Plan of the EEC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uba for 2021-2025	Eurasian Economic Union	2021-12-15	2021-12-15	

<자료원 : www.aladi.org, www.caricom.org, www.eurasiancommission.org>

나. 논의 중 협정

없음.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쿠바는 마약 및 무기류 등 몇몇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을 규제하고 있을 뿐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수입이 가능하다. 가장 큰 장애는 쿠바 정부만이 분야별 공기업에 앞서 수입이 가능한데, 만성적인 외화 부족으로 일반적으로 1~2년간의 외상거래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수출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사태도 자주 발생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지 중계상 혹은 L/C 할인 전문은행 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2022년 들어 외환부족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정상적인 수입경로가 사실상 막힌 상황으로, 산업별로 상황이 다르기는 하나 1)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 (FOD -> CIF), 2) 일부 필수품목의 경우 아바나에서 직접 현찰수령 요구 등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나 한국기업은 제3국 에이전트를 통해서 수출을 해야하는데 에이전트들 또한 수출대금 수령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분간 수출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금융제재로 금융기관의 달러 사용 또는 미국계 은행을 경유한 송금(U-Turn거래)이 불가해 유로화, 캐나다달러 등이 주요 결제화폐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쿠바와의 금융거래(L/C, T/T 등)가 가능한 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며, 아울러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제공도 중단되었다.

자동차의 경우 일반인이 구매 시 소비자가격이 수입가의 800%에 달해 극소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정도이다. 쿠바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도 구매하는 경우가 드물고 역시 고가의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우리 기업의 일반인용 자동차 시장진출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이어서, 정부가 운영하는 렌터카 시장에 초점을 맞춰 마케팅하고 있다. 중고차의 경우 명시적인 수입금지 규정은 없으나, 정책적으로 수입하지 않고 있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쿠바 내에서 제품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분야별 주요 인증기관은 다음과 같다.

- 의약품 및 의료기기: CECMED (<https://www.cecmed.cu>)
- 엘리베이터, 승강기: GNA (Grupo Nacional de Ascensores)
- 건축자재, 방수재: DN MICONs
- 측정기기: ONN (www.ncnorma.cu) * 한국에서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통신장비 및 부품: MINCOM(www.mincom.gob.cu)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쿠바는 정부에서 수입을 직접 수행하는 관계로, 다른 나라처럼 바이어의 관세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관세청(www.aduana.gob.cu) 또는 통계청(www.onei.gob.cu)에서는 개정된 최신 관세율표를 게재하고 있으며, 수입 품목별로 2%에서 45% 수준이다.

쿠바관세법은 1973년 관세협력이사회에서 승인되고, 교토협정서라고 알려진 '관세규정을 단순화하기 위한 국제협정'에 언급된 관세규정을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쿠바 내에서는 수출입 국영기업과 일부 쿠바 정부와 합작한 외국기업만이 수입 권한을 갖고 있다.

다만, 2020년 8월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발표하며, 이의 일환으로 그간 민간부문에 금지돼 있던 수출입 권한을 간접적으로 부여하였다. 단지, 그간 정부가 독점하던 수출입 권한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중소기업은 직접적인 수출입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쿠바 내 수출입 국영기업을 통해 거래처를 발굴하고 국영기업이 직접적인 수출입 업무를 대행하는 형태로 이뤄지는바, 기존과 같이 최종 수출입 권한은 정부에 국한된다고 봐야 한다.

2022년 9월에는 도소매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개방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와 함께 해당 기업들의 수출입 권한도 부여하였다. 다만 모든 기업이 도소매업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쿠바시장에 들어와 있던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수혜기업의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쿠바 관세청 홈페이지 내 관세정보 접속 (<https://www.aduana.gob.cu/index.php/pagina-basica/arancel-comercial>)

관세율표는 관세청 기준, 홈페이지에 접속해 Procesos → Comerciales → Arancel Commercial 메뉴로 이동하면 다운로드 가능하다.

6. 통관 · 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 주요 무역항: 섬나라인 쿠바는 약 5,750km의 해안선을 따라 총 70개의 항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화물항은 31개다. 한국에서 출발한 쿠바행 화물은 주로 태평양을 건너 파나마 운하를 통과한 후 수도 아바나에서 약 50km 서쪽에 위치한 마리엘 항구를 통해 들어온다. 해당 항구 및 아바나 항구를 통해 전체 물동량의 60%가 소화된다. 이후 육로를 이용해 내륙지역으로 운송되나, 열악한 도로환경으로 인해 내륙운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아바나항 및 마리엘항을 비롯하여 약 10개 내외의 국제규모 항구가 쿠바내 존재한다.

특히 2013년 9월 마리엘 자유무역지대 관련 법안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마리엘 항구는 파나마 운하 확장과 더불어 북·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을 아우르는 물류허브로 활용이 가능하다. 마리엘 특구는 자체 컨테이너항 이외에도 아바나-피나르 델 리오(Pinar del Rio, 쿠바의 서남부 도시) 고속도로, 아바나-마리엘을 연결하는 판아메리카 고속도로와 연결돼 있으며, 철도교통 인프라, 항공 인프라(아바나 호세 마르티 국제공항)도 보유하고 있어 쿠바 국내외를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쿠바의 무역항은 다른 국가 교통 인프라와 동일하게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장비 부족 등의 이유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나, 약 7억 달러가 투입된 마리엘 무역항의 경우 신식 시설을 자랑하고 있으며, 산티아고 데 쿠바 무역항의 경우 현재 중국자본을 통해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주요 무역항별 물동규모: 쿠바정부는 정확한 물동량을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마리엘 항구의 경우, 최대 88만 TEU까지 처리가 가능하며, 광물 및 농작물 운송에 특화된 산티아고 데 쿠바 항구는 약 5만 TEU의 처리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쿠바 전체 물동량은 약 39만 TEU 규모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2022년 Worldbank 기준)

2) 주요 공항 및 물동량

◦ 주요 공항: 쿠바의 주요 국제공항으로는 아바나 국제공항(Jose Marti International Airport), 바라데로 국제공항(Juan Gualberto Gomez International Airport), 산타클라라 국제공항(Abel Santa Maria International Airport) 등이 있으며, 그 중 우리나라 방문객들의 대부분은 아바나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바라데로 국제공항의 경우, 휴양도시인 바라데로에서 약 3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캐나다 및 유럽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 주요 공항 물동량: 미국의 대쿠바 제재, 고비용 등으로 인해 항공 화물 물동량은 그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다. 2019년 기준, 쿠바의 전체 항공 화물 물동량은 14백만 ton-km 수준이다.

3) 유의사항

◦ 우리나라와 쿠바는 연간 교역량이 4천만 달러(2021년 기준) 미만일 정도로 교류가 활발하지 않으며, 사회주의 특성상, 수입자가 쿠바정부이기 때문에 통관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부 내부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단지, 통관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경우는 드물지만, 장비 고장, 늦은 행정처리 등 물리적인 이유로 지연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발생한다.

◦ 수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로는 선하증권, 상업 송장, 품질·순도(purity)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포장 명세서 등이 필요하며, 약품, 폭발물, 포르노 물품·사진·책자 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물품, 쿠바의 보안 및 국내 질서에 반하는 모든 물품(책자 포함), 동물·식물 및 이들의 부분품 등의 통관이 금지된다.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우리나라에서 쿠바로 컨테이너를 보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년 교역량이 4천만 달러(2021년 기준) 미만일 정도로 교류가 활발하지 않으며, 수입자가 정부이기 때문에 통관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부 내부적

인 프로세스를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통관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경우는 드물지만, 장비 고장 등 물리적인 이유로 지연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발생한다.

○ 수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

- 선하증권, 상업송장, 품질·순도(purity)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포장 명세서

○ 수입/수출이 금지된 품목

- 약품, 폭발물, 포르노 물품·사진·책자 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물품, 쿠바의 보안 및 국내 질서에 반하는 모든 물품(책자 포함), 동물·식물 및 이들의 부분품(CITES 협정의 부록 1에 있는 품목)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Grupo Palco

주소	Calle 146 No. 1104 e/ 11 y 17 D, Reparto Cubanacán, Playa, La Habana
전화번호	+53 7208 4329/28/27
이메일	transitaria@palco.cu
홈페이지	http://www.gpalco.com/

○ Transcargo

주소	Fabrica # 54 6to piso e/ Aspuruc y Linea de Ferrocarril, Habana Vieja
전화번호	+53 7690-5409/5906
이메일	javier@transcargo.transnet.cu
홈페이지	https://transcargo.transnet.cu/
비고	해외 전용 URL

〈자료원 : KOTRA 아바나 무역관〉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쿠바 정부는 2014년 3월 외국인 투자유치를 장려하기 위해 1995년의 외국인투자법(Law77)을 대체하는 신 외국인투자법을 발표했다. 또한, 2019년 2월,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개정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국가 경제성장의 '보조적 수단'에서 '주요 전략'으로 인식, 기존 헌법에서 국가와 협동조합, 합작투자자산만 가능하였던 기업활동을 일반 외국기업에도 허용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기신고된 외국인직접투자 이행 지연에 대한 불이익을 면제해주는 등,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장려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1) 관련 법령별 주요 내용(발효: 2014년 6월)

- 외국인투자법 Law 118/2014(의회 통과)
 - 투자 보장, 투자 가능 분야, 투자 형태, 승인 절차, 분쟁해결방법, 금융 문제, 고용, 조세 등의 투자 전반을 다룸.
-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Decree 325/2014(각료회의 발표사항)
 - 투자 프로젝트 관련 각종 진행절차 명문화, 외국인투자평가위원회 신설
- 중앙은행(Banco Central de Cuba) 시행규칙 Resolution 46, 47/2014
 - 외국인 투자자들의 쿠바 내 은행계좌 개설
 - 외국인 투자자의 쿠바 내 이익금 송금 허용
- 대외무역부(MINCEX) 시행규칙 Resolution 128, 129/2014
 - 외국인 투자 평가위원회 운영방안
 - 투자 프로젝트의 경제 기술 타당성 조사 결과 제시를 위한 방법론 수립
- 사회보장노동부(MTSS) 외국인투자법 시행규칙 Resolution 16/2014
 -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체제 규정: 임금 협상, 급여 세부 내용, 국영 인력 파견회사와의 관계

2) 기존 외국인투자법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외국인 투자자 소유권 허용
 - 100% 외국인 소유를 허용하며 외국 거주 쿠바인의 투자도 허용
 - 과거, 규정상으로는 100% 외국인 소유가 허용됐으며 실제로는 정부가 이를 허용치 않아 사업 운영권 보장이 어려웠음.
 - 외국 거주 쿠바인의 투자 역시 실제로 거부되곤 했음.
- 사업 승인절차 간소화
 - 외국인투자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사업 내용에 따라 대사업과 소사업으로 구분
 - 소사업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45일 내 사업 승인
 - 기존에는 국가평의회 혹은 각료회의에서 승인했으며 60일 이상 소요

- 조세감면 혜택

- 합작투자 혹은 혼합회사, 국제경제제휴계약의 외국인 투자자 파트너의 경우,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배당금 및 수익에 대한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를 감면
- 합작투자 혹은 혼합회사,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 국제경제 제휴계약의 당사자가 납부해야 하는 순수과세대상수익에 대한 소득세 15%(과거에는 35%)를 사업 초기 8년간 면제
- 투자를 위한 각종 기계·기기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 면제

3) 신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사항

- 분쟁 발생 시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쿠바 소재 중재재판소에서 해결
- 합작회사는 쿠바의 국영 인력파견회사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해야 함.
- 임금은 파견회사에 쿠바페소(CUP)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환(USD/EUR 등)으로 지급하며 파견회사는 노동자에게 쿠바페소(CUP)로 임금 지급

4) 외국인 투자법 주요 내용

- 외국인투자의 보장
- 외국인 투자자는 공익 혹은 사회적 이해와 관련되지 않는다면 완벽한 법적 보호를 보장받으며, 국유화의 경우 정당한 보상을 법으로 보장
- 투자 배당금 혹은 이익의 해외 송금 가능(별도의 세금 혹은 수수료 없음)
- 외국인 투자자는 정부기관의 승인 이후, 정부나 협력 단체 혹은 제3자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팔거나 이전 가능
- 투자 가능 분야
- 쿠바 정부는 보건·건강, 교육, 군사기관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며 쿠바 정부의 우선 투자 희망분야를 선정한 바 있음.
- 투자 방법
- 직접투자: 직접투자를 제외한 주식 투자, 혹은 유가증권 등에 투자

5) 직접투자 사업형태

- 합작투자 혹은 혼합회사(Joint Venture)
- 외국인투자자와 내국인투자자가 새로운 주식회사(기명주식)를 설립하는 형태. 회사 운영은 쿠바의 내국법 규정을 따름.
- 외국인투자자와 내국인투자자의 출자 자본금은 상호합의를 통해 정하며 투자승인서에 명기
- 상업등기소에 등록해 법인의 성격을 획득할 수 있으며 지사, 대표사무소, 자회사 혹은 해외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 외국자본회사(Totally Foreign Capital company)
- 투자 전액이 외국인 자본으로만 이루어진 회사를 설립한 경우
- 국제경제제휴계약(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Agreement = 파트너십 계약)
-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가 특정 분야의 국제경제활동을 위해 맺는 계약으로 별도의 법인 설립이 필요 없음.
- 활동 분야: 호텔, 생산 및 서비스 경영,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 건설, 농업 생산
- 외국인투자자: 외국 주소와 외국 자본을 가진 개인 혹은 법인

· 내국인투자자: 쿠바 주소를 가진 쿠바 국적의 법인

투자인센티브

신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다.

- 8년간 면제, 이후 15% 적용(단, 100% 외자기업은 별도 혜택 없으며 35% 법인세 부과)

한편, 마리엘특구투자기업의 경우는 법인세 감면율이 높는데, 10년간 면제되며 이후 12%가 적용된다. 또한 마리엘특구 법인세 감면혜택은 100% 외자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한 및 금지(업종)

쿠바는 보건, 교육, 국방 및 치안 분야에는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신투자법 11조).

또한 천연자원 개발, 공공서비스, 바이오산업, 유통업, 관광업 등에는 합작형태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만 50% 미만의 지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쿠바 정부는 본격적 외자 유치를 위해 2013년 9월 마리엘 경제특구 개발법을 채택한 데 이어, 2014년 3월 외국인투자 개정법 118조를 발표, 관련 외자유치 행정령인 대외무역부 행정령 128 및 129조, 중앙은행 행정령 46 및 47조, 고용사회안전부 행정령 16조 등 종합적인 외자유치 활성화 법제를 마련했다.

2014년 1월 마리엘 경제특구 단지가 가동을 시작, 대대적인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활동에 나섰으나 고용 자유화 문제가 미해결 및 인프라 미비 등으로 인해 쿠바 내 기존 외국인 업체를 제외한 신규기업 진출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2022년 5월 기준, 마리엘특구에는 21개국 소재의 기업으로부터 총 61개의 프로젝트(규모 30억 달러)가 승인되었다.

쿠바정부는 2019년 헌법개정 및 제8차 공산당 전당대회 등을 통해 쿠바 정부의 강력한 외자유치 도입 의지를 밝혔으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및 글로벌 경제 편입 노력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꾀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강화된 금융 제재, 낙후된 금융 시스템 및 영업이익 해외송금 제한, 외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수입대금 지급 지연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단지

○ 마리엘 발전특구(La Zona Especial de Desarrollo Mariel, ZEDM)

규모	465km ²
위치	아바나에서 서쪽으로 45km 지점
임차료	투자분야별 임차료는 상이하며 SM당 1년에 30~60달러 정도이다. 또한 사업연수에 따라 적용 금액도 상이하다.
관할기관 및 연락처	○ 마리엘경제특구 사무소 - 주소: Centro de Negocios Pelicano, 3er Piso, Zona A-5. Sector A, Mariel, Artemisa. - 전화: (53-47) 397360 al 63 - 이메일: correo: ventanillaunica@zedmariel.co.cu - 웹사이트: http://www.zedmariel.com/ * '22년 6월 현재 접속 장애 중

<자료원 : <http://www.zedmariel.com/>>

주요 지역별 여건

없음.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5	2016	2017	2018	2019
-	-	-	-	-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 대외 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5	2016	2017	2018	2019
-	-	-	-	-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 한국기업투자 통계표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05	1	0	0	0	0
2014	1	0	300	0	0
2015	0	1	0	1	5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업종별 투자 동향표

- 2005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1	0	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4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도매 및 소매업	1	0	30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5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도매 및 소매업	0	1	0	1	5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없음.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 합작법인 설립 요건 및 심사 기준

법적으로는 외국인 단독법인 설립이 가능하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하지 않고 합작법인이 대부분이다. 쿠바 측과 합작법인 설립도 케이스별로 제출 서류 및 심사 기준이 다르다.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설립허가를 미루기도 하며 급한 사항에 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어 운영하기도 한다.

- 신청서 제출 기관: 쿠바 대외무역투자부(MINCEX), 쿠바무역투자진흥공사(Procuba)
 - 주소: Calle 22 No.318 e/3ra y 5ta, Miramar, Ciudad de La Habana, Cuba
 - 전화: (53-7)830-0495
 - 이메일: idlaberto.aparicio@procuba.cu
 - 홈페이지: www.procuba.cu
 - 담당자: Mr. Idalberto Aparicio

지사

쿠바에서는 지사와 연락사무소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Sucursal이라는 형태의 사무소 형태가 있다. 이는 연락사무소의 개념에 가깝다.

연락사무소

- 설립 요건
 - 본사 등록지 국가에서 최소 5년간 영업한 회사
 - 자본금 최소 5만 달러
 - 쿠바와 최소 3년간 거래 경력이 있고 최근 3년간 쿠바와의 거래액이 매년 50만 달러 이상(쿠바 정부 필요에 의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음)
 - 설립 승인 후 3년 유효하며 이후 갱신 신청
- 설립 신청 시 제출서류
(*우리나라에 쿠바 대사관이 없는 관계로, 현재 양국 간 공식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주멕시코 쿠바대사관을 통해서 공증)
 - 연락사무소 개설 신청 서한
 - 회사 정관 사본(쿠바 대사관의 영사 확인 및 쿠바 공증사무소 공증)
 - 연락사무소 대표자에 대한 위임장(쿠바 대사관의 영사 확인 및 쿠바 공증사무소 공증)
 - 쿠바와 거래했던 제품 목록(HS CODE 기준) 및 설명
 - 소재국 거래 은행의 신용조회서(설립 신청 전 3개월 이내. 쿠바 은행이 소재국 거래 은행에 직접 신용 조회를 요청)
 - 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이력서
 - 최근 5년간의 운영 현황 보고서
 - 최근 3년간 거래한 쿠바 회사 리스트, 회사별 거래 품목 및 거래 규모(쿠바 회사들로부터 확인 레터를 받아야 함)
 - 최근 재무제표(외부 기관 감사 확인을 받아야 함)
 - 소재국 회사등록 증명서(개설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 신청서 제출 기관: 쿠바 상공회의소(Camara de Comercio de la Republica de Cuba)
- 주소: Calle 21, esq. a calle A, No. 661, Vedado, Ciudad de La Habana, Cuba
- 전화: (53-7)830-2643
- 이메일: juridico@camara.com.cu
- 홈페이지: www.camaracuba.cu (사이트 보수중)
- 담당자: Mrs. Katia Monzon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1) 투자위험도 쿠바의 만성적인 외화부족 상황이 대규모 자연재해, 미 제재 강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관광산업 급락 등의 이유로 2018년 하반기 이후 급격히 악화되면서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의 투자 위험도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분류된다. 2009년 쿠바정부는 극심한 외화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쿠바 내 외국인 계좌 전체를 동결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여 수많은 외국기업의 피해로 이뤄진 사례가 있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외국기업의 이익송금이 현실적으로 제한되거나 지연되는 등, 자국내 외화부족 상황으로 인한 외화 출금 등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점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쿠바법에 의거하여 모든 합작회사의 독자적인 경영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점도 투자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 합작회사 대부분에 대해 쿠바정부가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되어있다. 합작법인 등 외국인 투자기업은 원칙적으로 국유화 대상이 아니나, 쿠바 헌법이 규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국유화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며, 국유화 결정시 쿠바정부와 외국인 투자자 간 상호 합의를 통해 보상하도록 되어있다. 2)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쿠바는 고용 관련 제도가 매우 까다롭다. 쿠바는 공산주의 통제사회로 모든 고용을 국가에서 관리하며, 특히 외국인은 쿠바인과 개별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합작회사 등 외국인투자기업을 관할하는 쿠바 정부부처의 인력 관리기관만이 고용인력을 선정, 채용할 수 있으며, 해당 인력 관리기관은 투자기업에 해당직원을 파견하는 형태로 고용이 이뤄진다. 단, 적합인력의 부재, 관료주의 등으로 인해 실제 고용 가능한 직원 채용시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임금지불도 합작회사가 외환으로 인력관리기관에 종업원들의 임금을 지불하고, 인력관리기관은 종업원들에게 쿠바 페소(불태환페소/CUP)로 임금을 지불하는데, 합작회사가 실제 지불하는 높은 임금(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쿠바 인력관리기관이 종업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은 통상적으로 월 USD 40내외 수준이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합작회사는 종업원들에게 인센티브(gratificacin)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비공식 급여를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부담하는 임금수준이 인근 중남미국가에 비해 결코 낮은 편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분쟁해결 분쟁 발생 시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쿠바 소재 중재재판소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쿠바의 기업은 모두 국영기업이며, 형식적으로는 주식회사(Socieda Anonima)의 형태로 되어 있다.

개인사업자

쿠바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입 활동에 대한 권한은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나 쿠바정부는 2021년 8월, 기존의 자영업 허용에서 진일보한 중소기업의 설립, 운영 및 규제에 대한 일련의 법안을 통과하였으며, 해당 법안은 기존의 자영업 가능업종의 폐지와 함께 현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 하에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표방, 이의 일환으로 그간 민간

부문에 금지돼 있던 수출입 권한을 부여하였다.

단지,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직접적 수출입 권한을 부여받을 수 없으며, 정부 수출입 공기업을 통한 간접적 수출입만 가능하다

중소기업 육성, 자영업 가능 업종 폐지, 민간부문의 수출입 허용 조치 등은 쿠바 정부의 부족한 외화획득 및 민간부문의 기본소득 증대를 위한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부의 집중, 빈부격차의 확대 예방을 위한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 대한 일부 수정 없이는 그 한계점이 예상된다.

새로운 형태의 중소기업은 국영, 민간 또는 합작 형태를 띌 수 있으며, 기존의 개인사업자 상당수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쿠바내 자영업자의 수는 2019년 말 기준 60만 명을 기록하였으나, 중소기업법 제정 이후 상당수 중소기업으로 그 영업형태를 변경하며 2022년 6월 기준, 35만명에 이른다.

한편, 법 발효 이후 약 1년이 경과된 현재, 쿠바내 중소기업 규모는 총 2500개로 집계된다.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Bufete de Servicios Especializados - BES

전화번호	537 832-6024 / 835-3160
주소	Calle 23 No. 501 esquina a J. Vedado, La Habana, Cuba
홈페이지	https://www.bes.onbc.cu
이메일	besnet@enet.cu
비고	해외 전용 URL

◦ Consultoria Juridica Internacional S.A

전화번호	537 2042490
주소	Calle 16 No 314, entre 3era y 5ta ave. Miramar, Playa, La Habana. Cuba
홈페이지	https://www.minjus.gob.cu
이메일	pavon@cji.cu

◦ Consultores y Abogados Internacionales CONABI

전화번호	537 214-4950/51/52/53/54
주소	Calle 36 A No. 313 entre 3a y Final, Miramar, municipio Playa. La Habana, Cuba
홈페이지	http://www.conabi.cu/
이메일	conabi@conabi.cu

〈자료원 : KOTRA 아바나 무역관〉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쿠바는 1994년부터 수입물가 안정 및 외화 취득을 목적으로 이중화폐제를 채택하였다.

태환페소(CUC)의 경우 외국인용 숙박업소, 식당, 관광지 및 주요 공산품 구입에 사용되었으며, 불태환페소(CUP)의 경우 일부 재래시장(기초 생필품), 내국인용 전기, 전화, 관광지 등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1(태환페소):24(불태환페소)의 공식환율에도 불구하고, 정부산하 공기업, 생필품 수입기업 등에 대해서는 1:1의 환율을 적용하며, 관광산업 종사기업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율을 적용함에 따라, 정부산하 공기업의 재무재표상에는 태환페소와 불태환페소의 차이가 사라지고, 왜곡현상이 발생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훼손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쿠바정부는 2021년 1월, 이중화폐제도 운영의 폐지를 발표하며, 쿠바페소(불태환페소, CUP)를 유일한 화폐로 유지한다.

쿠바페소는 미 달러에 고정된 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USD 1 = CUP 24),

화폐 통합에 따른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쿠바정부는 중단기적으로 환율제도의 변동이 없을 것임을 발표하였다.

2022년 5월 기준, 정부의 단일 공식환율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외화수급 불균형 상황에 따라, 비공식부문 및 민간부문에서는 쿠바 페소화는 미 달러 대비 약 5배 평가절하되어 거래되고 있다.

외환 규제

쿠바는 만성적인 무역적자로서 항상 외화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외화에 대한 규제가 많다. 일반인들의 경우 외국으로의 송금이 규제돼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시에도 1인당 5,000달러 이상을 가지고 출국할 수 없다.

쿠바로로 친인척 송금 수단이 되고 있는 Western Union의 경우에도 쿠바에서 외부로 송금은 금지되고 있다. 수입액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친인척 송금 및 관광산업 그리고 의사 등 전문인력 파견 등으로 보전하고 있으며, 실제로 해외로 송금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일부 허가 받은 국영기업들로서 금액에 따라 중앙은행의 사전허가를 받고 시행하고 있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USD 1 = CUP 24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88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88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0
비고	쿠바는 사회주의 국가로 무상복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 기준, 1인당 구매력 기준 GDP(PPP)는 USD 13,035 수준이나 쿠바 노동자(정부부문 근로자)가 매달 받는 월평균 급여는 약 CUP 3,888이다(약 USD 93). 단, 이는 정부의 공식환율(USD1=CUP24)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며, 실제 민간부문에서 거래되는 환율을 적용 시 월평균 급여는 약 USD 20 수준이다. 외국인기업의 경우는 쿠바인을 직접 고용할 수 없고 쿠바 인력관리기관을 통해서 직원을 파견받는다. 고용계약에 따라 외국인기업은 인력관리기관에 직원별 500~900달러의 인력공급서비스료를 인력관리기관에 지급해야 하며, 해당 직원에게는 별도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다.				

<자료원 : 쿠바 통계청>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쿠바는 공산주의 통제사회로 모든 고용을 국가에서 관리하며, 특히 외국인인 쿠바인과 개별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합작법인, 국제경제 협력계약 등 법인 성격의 영업 시에는 모든 노무관리를 쿠바 측이 전담한다. 아래 사항은 연락사무소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이다.

- 고용
 - 쿠바 무역부 산하 인력운영기관인 ACOREC이 외국 연락사무소에 대한 인력 파견 총괄
 - 외국인은 ACOREC에 필요한 인력 내용을 서한으로 신청하며, ACOREC은 후보자를 신청 회사에 추천
 - 외국인은 추천받은 후보자 중 적격자를 채용 결정하며(또는 희망하는 인력을 선정하여 ACOREC에 채용 의뢰할 수도 있음), ACOREC과 인력 파견 계약서를 작성
 - 고용 예정 쿠바인은 ACOREC과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
 - 업종이 무역 및 투자 등의 경우 ACOREC을 통해서 직원을 지원받고 관광/호텔의 경우 Cubanacan 혹은 Gaviota로부터 인력을 지원하는 등 분야에 따라 담당기관이 정해져 있음.
 - 사무실에 외국인 근로자수가 현지인 근로자수보다 많을 수가 없으며 차량의 경우에는 최대 등록된 직원 수만큼의 차량만을 유지할 수 있음.
 - 인력파견회사에 신청해 실제로 인력을 파견받을 때까지 시간이 과도하게 많이 걸리는 경향이 있으며(평균 6개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

○ 임금 지불 방법

쿠바인 직원에 대한 임금은 ACOREC과 최초 작성한 인력파견 계약서에 기재되며, 매월 외화(USD)로 ACOREC에 직접 지불한다. ACOREC은 쿠바인 직원에게 쿠바페소로 임금을 지불하는데, 환산 시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USD 100 수준이다. 이에, 통상적으로 외국인기업은 종업원들에게 Gratification이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비공식 급여를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다.

- 임금 수준: 직종에 따라 500~900달러로 상이

근로시간

- ACOREC과의 인력파견 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명시한다.
- 1일 8시간, 주 44시간, 월 190.6시간

휴가

-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1년에 30일
- 휴가기간은 무급

해고

외국기업은 직원과 직접계약관계가 아니고 인력파견기관과 계약을 맺는다. 따라서 '해고'라는 용어보다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인력파견기관에 퇴직보상금을 지급한다.

퇴직금

외국인(기업)이 체결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근로자파견기관(ACOREC)에 지급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퇴직보상금은 ACOREC 공식 월급을 기준으로 하며, 월급을 24일로 나눈 일당을 기준으로 한다. 쿠바 직원에게는 공식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퇴직금 계산 기간은 다음과 같다.

- 1년 미만 근무 시: 24일분
- 1~5년 근무 시: 65일분
- 5~10년 근무 시: 89일분
- 10년 이상 근무 시: 161일분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의료보험, 연금 등 모든 사회보장제도는 쿠바 정부에서 총괄하며, 외국기업이 인력파견기관(ACOREC 등)에 지급하는 외화 월급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고용보험

의료보험, 연금 등 모든 사회보장제도는 쿠바 정부에서 총괄하며, 외국기업이 인력파견기관(ACOREC 등)에 지급하는 외화 월급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산재보험

의료보험, 연금 등 모든 사회보장제도는 쿠바 정부에서 총괄하며, 외국기업이 인력파견기관(ACOREC 등)에 지급하는 외화 월급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연금 등 모든 사회보장제도는 쿠바 정부에서 총괄하며, 외국기업이 인력파견기관(ACOREC 등)에 지급하는 외화 월급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 합작회사 및 국제경제협력계약 회사 모두 연간 순익에 대해 3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 쿠바의 천연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50%까지 부과할 수 있다.
- 개인운영식당(Paladar) 및 숙박업의 경우 매출/임차료에 따라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50% 수준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탈세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다 .

개인소득세

- 쿠바 종업원에게는 물론 외국인에게도 개인소득세 부과 제도가 없다.

부가가치세

- 쿠바 정부가 직접 주체가 돼 무역에서부터 유통 그리고 관광사업 등 모든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만큼 부가가치세 제도가 없다.

특별소비세

- 쿠바 국내에서 최종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 Sales Tax (Impuesto sobre la venta) 가 도매에 2%, 소매시 10% 부과된다.
- 쿠바에서 발생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10%의 Service Tax (Impuesto sobre los servicios) 가 부과된다.
- 주류, 시가, 담배류에 대해서는 일종의 특별소비세 (Impuesto especial a productos y servicios)는 법률로 정해진 세율이 없이 연도 별 예산안에서 결정된다.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쿠바는 카리브 해안 국가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이며, 현재까지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제한적이거나 경제개혁을 단행하였고, 2014년 외국인 투자법을 채택하여 특별개발구역(Special Development Zone)을 설치하는 등 투자, 기술혁신, 산업 집중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발명은 특허와 실용신안을 통해 보호된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신규하고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실용신안은 제3자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12개월 이내에 실체심사를 시행한다는 점,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 비해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제품 또는 공업 생산제품의 형태, 모양, 외관(2차원적인 것), 혹은 3차원 적인 대상이 신규성과 독창성의 요건을 갖추면 디자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디자인권의 효력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쿠바의 상표 관련 법령은 문자, 이미지, 기호, 소리, 향기, 글자, 숫자, 색채 및 색채의 조합과 3차원적인 상품까지 보호의 대상으로 한다. 상표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 단위로 무한히 갱신 가능하다.

한편, 저작권은 상표 및 특허권과 달리, 창작하는 순간 자연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50년간 존속한다.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법령으로는 포고령 68호(Decree-Law No. 68: 과학적 발견, 산업디자인, 상표, 원산지 표기), 포고령 290호(발명, 산업디자인, 실용신안), 포고령 228호(지리적 표시), 포고령 203호(상표), 포고령 14호 및 156호(저작권), 포고령 160호(약품, 화학제품 및 농산물의 특허출원) 등이 있다.

쿠바가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협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쿠바는 디자인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는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고 있다

9. 청산 및 철수

청산 및 철수

대외무역부 결의안(Resolucion 501/2001)은 연락사무소(Sucursal) 면허 취소/정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아래의 경우 연락사무소 면허 취소 원인이 됨.

a. 기업이 자발적으로 면허취소를 요청한 경우

b. 면허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c.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d. 허가되지 않은 활동을 하여 영업정지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

2) 상기 원인 중 a,b,c의 경우 면허담당기관이 직접 처리하며, d의 경우에는 부처 차원의 결의안 필요함.

Ⅳ.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특성

소비인구

쿠바의 총인구는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 11,113,215명이다. (2022년 기준 최신자료)

- 남녀 성비는 49.6:50.4 이다.
- 연령별로는 14세 이하가 15.7%, 15~59세가 62.7%, 60세 이상이 21.6%로 나타났다.
- 수도 아바나 거주인구는 2.1백만 명(18.9%)이며 산티아고주 1.05백만 명, 올긴주 1.03백만 명이다. 지방별로 인구가 상대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발달한 중서부에 다소 밀집한 모양이다.

쿠바의 인구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1,10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인구규모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최근 경제사정 악화로 쿠바를 탈출하는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 다소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1년 10월 이후 11달 동안 총 인구의 1.7%에 이르는 18만명이 과테말라, 멕시코 등을 통해 육로, 또는 바다를 통해 미국으로 탈출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1959년 혁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의 탈출은 젊은층, 지식인층, 기술직 위주로 향후 장기적인 쿠바경제성장 동력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쿠바 소비자는 크게 ① 외화소득이 거의 없이 정부급여(월 90달러 내외)로만 생활하는 그룹, ② 정부급여 이외에 해외송금 등을 통해 외화소득이 있는 그룹, ③ 정부급여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이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인 그룹으로 분류된다. 기본적으로 쿠바 내에서 외화로의 접근이 가능한 직업을 보유했나 여부에 따라 생활수준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이는 외화를 벌 수 있는 직업일 수도 있고, 또는 미국에 소재한 가족/친척이 송금해주는 이전소득일 수도 있다.

- ①번 그룹은 사실상 정부의 배급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어 실질적인 소비력은 거의 없다.
- ②번 그룹은 연평균소득이 600~700달러 수준으로, 생필품 확보에도 종종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정적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다. (아바나 인구의 30%)
- ③번 그룹은 연평균소득이 1,800~2,000달러 수준으로, 주로 자영업자, 관광분야 종사자 등이다(아바나 인구의 20%).

<자료원 : 쿠바통계청>

소비 성향

쿠바는 1959년 이래 60년 넘게 유지된 사회주의 국가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1898년 독립부터 1959년 혁명 이전까지 실질적으로 쿠바 경제, 사회를 지배했던 뿌리 깊은 미국의 영향으로 소비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큰 소비 지향적 사회이다. 혁명 당시 부유층은 대거 망명했고, 1990년대 경제위기로 인한 탈출 등으로 현재 약 200만 명의 쿠바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쿠바인들에게 연간 2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송금하고, 방문 등을 통해 교류하고 있어 미국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2019년 10월,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쿠바 제재 강화로 인해 분기당 1인 송금 한도를 월 USD 1천으로 제한하고 최대 3개월까지 연속 송금을 허용함에 따라, 주요 외화 수입원이었던 해외송금 규모는 대폭 축소되어 소비력이 크게 악화되었다. 그러나 2022년 5월 바이든 대통령 쿠바제재 완화정책으로 위의 송금제한 정책을 폐지하는 한편,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기부형태의 송금이 가능하도록 열어줌에 따라 소비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020년 7월, 쿠바정부는 외국환으로만 거래가 가능한 외국환 상점을 전국에 개장하며 실질적인 달러 통용이 진행되고 있는바, 이는 쿠바 내 새로운 소비패턴으로 정착되었다.

2022년 9월 현재, 극심한 물자부족 및 외화부족에 따라 대부분의 생필품 공급이 외국환 상점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인 달러화 경제권과 폐소화 경제권으로 양분화되며 달러 소득이 전무한 대다수의 국민은 원활한 생필품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환 상점 내에도 주요 생필품 부족 현상은 주기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쿠바 내 물자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쿠바에 사는 모든 외국인의 경우 USD로 책정된 주택임차료, 차량임차료 등을 지불하고 있으며, 각각의 담당기관의 재무 상황에 따라 현지화 또는 외화로 지급을 해야한다.

특히 지출규모가 큰 사무실 임차료, 주택 임차료, 차량 임차료, 직원 채용 등의 비용은 모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가격 책정 정책에 따라 이뤄짐에 따라 체감물가가 일반 선진국 이상으로 비싼 편이다.

한국 상품 이미지

한국의 주요 글로벌 브랜드는 쿠바시장에서도 널리 알려졌다. 가전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공항을 비롯해 주요 공공장소에 광고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 최초로 브랜드숍을 운영하고 있다. LG전자도 쿠바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A/S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는 현대차, 기아차가 쿠바 정부시장, 렌터카 시장을 중심으로 약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디젤 발전기는 쿠바 전력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쿠바는 국가의 경제 시스템 독점운영으로 광고시장이 거의 없고,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가 다른 시장에 비해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상업적 목적의 광고는 쿠바 정부의 수용 폭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국제행사 및 스포츠 후원, CSR 활동 등 대의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 평판 관리
 - 쿠바는 내부 정보 교류가 매우 활발하고 한 공기업과의 업무 내용이 전 공기업에게 공지되기 때문에 특정 쿠바기업에게 실수를 하거나 약속을 이행치 않을 경우 관련 내용 급속히 쿠바 전역에 확산될 가능성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관료주의, 인맥 형성
 - 쿠바의 바이어는 월 100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는 공무원으로 관료주의가 심하고 업무의 비효율성이 높은 편으로, 효과적인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현지 인맥관리가 필수이다.
- 지속적 관계유지
 - 쿠바기업과 거래관계가 구축되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쿠바 거래처의 핵심인사를 방한 초청하여 기술교육, 현장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 시 상당한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 대금지급 시기 지연 빈번
 - 수입대금 지불에서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며, 외화 부족으로 지연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대금지연 사례 발생 시, 국내 무역보험 가입이 중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018년 하반기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으로부터 수입한 대금을 2022년 5월 현재까지 미지급하고 있다. 쿠바정부는 외환 보유 상황이 개선될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는 원칙을 갖고 주요국들과 채무 리스케줄링을 협의 중이다.
- 통신환경 취약
 - 현지 인터넷 사정이 취약하고 이메일 수신용량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메일로 메일 발송시 메일 본문에 최대한의 내용을 기재하고, 파일 첨부는 지양하거나 최소 용량(1메가 이하)으로 하는 것이 좋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 쿠바는 강력한 공권력을 가지고 내국인 및 외국인의 활동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미팅에서는 쿠바 사회 및 체제에 대한 비판 또는 비교를 삼가야 하며 특히 정치적 발언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국제전화 및 이메일 교신 시에도 유의가 필요하다.
- 비즈니스 복장은 더운 날씨 때문에 양복을 입는 경우는 드물며 현지인들은 간단한 복장을 선호한다. 정부 공식행사 등에서는 우리나라의 모시옷과 유사한 guayabera 상의를 정장 대신 착용한다.
- 미팅을 시작하기 전에는 날씨, 방문 소감, 자연환경 등의 담소를 나누면서 ice breaking을 하는 것이 좋으며, 구면일 경우 서로의 볼에 입을 맞추는 인사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 2022년 5월 현재까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재택근무, 순환근무 등이 종종 발생하는 바, 방문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담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주요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쿠바 내 사용이 가능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2020년 6월에서야 실질적으로 도입되었다. 쿠바 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절대다수는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쿠바인들이 거주국 신용(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쿠바 내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생필품을 발송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현재까지 해당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90%는 기초 생필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상기 플랫폼은 외화(USD/EUR 등)로만 구입이 가능하며, 쿠바 내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외화계좌 개설 및 직불카드(신용카드는 쿠바 내 발급 불가) 발급이 2021년 상반기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된 직불카드는 국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플랫폼에서는 사용이 불가한 바, 현재까지 쿠바인들의 전자상거래 사용 빈도는 지극히 낮은 편이다. 여기에는 일반 쿠바인들의 외화접근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캐나다, 스페인 등 외국소재 기업이 쿠바 유통 공기업 또는 식품합작회사 등과 협업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며, 대부분의 판매제품이 육류, 유제품, 곡류 등의 생필품을 차지하나, 일부 소형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곳도 존재한다. 한편, 낮은 재고물량, 열악한 물류환경 등의 이유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수령하기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쿠바 내 기초 생필품 등 물자부족 상황이 지속되면서 제품의 구성이 자국내 공급현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하다. 1) Supermarket 23 (www.supermarket23.com) ◦ 주요 판매 품목: 육류, 햄, 생선, 유제품, 커피, 파스타, 위생용품 등 ◦ 특징: 해외 및 쿠바 내 결제 가능 2) Envio Cuba (www.enviocuba.ca) ◦ 주요 판매 품목: 육류, 햄, 생선, 유제품, 커피, 파스타, 음료 등 ◦ 특징: 해외에서 결제 가능, 쿠바 국영 유통기업(La Puntilla, Carlos III 등)이 해당 플랫폼에 입주하여 자사 유통제품을 판매 3) Cuba Market (www.cubamarket.net) ◦ 주요 판매 품목: 육류, 가공식품류, 유제품 등 ◦ 특징: 해외에서 결제 가능 4) Mall Habana (www.mallhabana.com) ◦ 주요 판매 품목: 육류, 가공식품류, 배달음식, 소형 가전제품 등 ◦ 특징: 해외에서 결제 가능 5) Pucara (www.tienda.pucara.net) ◦ 주요 판매 품목: 육류, 가공식품류, 음료 등 ◦ 특징: 해외 및 쿠바 내 결제 가능
---------------------	---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쿠바 내 유일한 기관인 KOTRA 아바나 무역관은 개설(2005년) 이전 여건 조성을 위해서 약 10년간 쿠바 아바나국제박람회에 멕시코 무역관을 통해 참여하는 등 현지 인맥을 쌓고 KOTRA가 어떤 기관인지 현지에 계속 각인시켰다. 쿠바는 미국과의 적대 관계로 인해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수년간 지켜본 뒤에 허가를 내주는 만큼, 오랜 투자기간을 놓고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쿠바를 방문했고 아바나 무역관을 방문해 진출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쿠바의 까다로운 조건을 듣고 대부분 포기했다. 아직 쿠바와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많지는 않지만, 일단 진출에 성공하면 사업 기회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대기업들도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한 번 진출에 성공하면 주요 우량기업들의 에이전트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쿠바에 수출할 때는 대금회수를 가장 먼저 염두에 뒀야 한다. 쿠바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만기에 대금지급이 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K-sure에서 제공하는 수출보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수출보험 같은 위험회피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수출을 한 후에 쿠바은행이 대금지급을 하지 않으면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단지, 2018년 하반기부터 발생한 쿠바정부의 수입대금 미지급 건으로 인해 K-Sure에서 제공하는 수출보험의 신규가입은 현재 (2022년 5월 기준) 가입이 중단되어있는 상황이며, 쿠바와의 금융거래 (L/C거래 포함)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은 현재 전무한 상황이다.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 아바나 공항 입국 심사 시 여권과 관광비자(Tourist Card)를 제시해야 한다.
 - Tourist Card는 국내 여행사 또는 아바나 입국 직전 공항에서 구입 가능하며, 1인당 US\$ 25~100 수준이다. (구입국가에 따라 상이)
 - 캐나다에서 Air Canada로 입국시 항공권 가격에 비자가 포함되어 있어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들이 나눠주는 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입국하면 된다.
 - 입국 시 날인된 관광비자는 출국 시 제출해야 하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 공항입국심사시 쿠바 입국을 위한 사전질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QR코드를 제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COVID 검사, 별도의 수화물 검사를 거쳐야 한다
 - 사전질의서는 쿠바정부 사이트 (<https://dviajeros.mitrans.gob.cu/>)에서 작성 가능하며, 1인당 1건씩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 쿠바는 미국의 테러지원국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쿠바방문 기록이 있을시 미국 ESTA 비자가 취소되고 정식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 ESTA 홈페이지 FAQ : (질문) How does Cuba's designation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impact my travel to the United States using my approved ESTA?
(답변) If a traveler is found to have visited a country designated as State Sponsor of Terrorism, the traveler is no longer eligible to participate in the Visa Wavier Program and must apply for a visa to enter the United States.
 - 따라서 쿠바 방문시 미국을 거치는 것보다는 캐나다, 유럽을 거쳐 입국하는 것이 안전하다
- 쿠바 기업 및 기관 방문 시에는 관광비자 대신 상용비자(D7)를 발급하여 입국해야 한다. 발급기간은 4주 정도 소요되며 초청기관에 따라 US\$ 10~85의 비용이 소요된다.
 - 발급은 쿠바측 파트너 기업에서 발급해주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 KOTRA 아바나무역관을 통해서도 사전 접수가 가능하다.
- 2022년 5월, 코로나19 관련 입국시 방역절차를 모두 폐지하였으며, 이에 기존의 PCR 음성결과지 및 백신 접종증명서 등의 지참이 불필요하다. 단, 입국시 무작위로 PCR 검사를 시행하며 양성 판정시 시설격리 의무가 부과된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 수하물 수취대에서 부친 짐을 찾은 후 입국장으로 나갈 때 세관원에게 사전질의서를 통해 생성된 QR코드를 제출해야 하며, 세관원은 수하물 태그를 일일이 확인한다.
 - 수하물 태그에 검사표시가 되어있는 경우는 별도 세관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음식물, 의약품, 전자제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한다.
 - 전자기기 등을 다량으로 갖고 오는 경우에는 상업적 목적으로 인식되어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유의 필요가 있다.
 - 드론, 무선 리시버, 위키토키, 위성 안테나, 셋톱박스, 고출력 전자기기 등의 제품은 반입이 불가하며,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전수조사를 통해 과세/반입 여부를 검토한다.

- 가공되지 않은 육류, 생선, 채소류 등은 모두 반입이 불가능하다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 멕시코 한국대사관

전화번호	(+52) 55 5202 9866
주소	Lopez Diaz de Armendariz 110, Col. Lomas de Virreyes Deleg Miguel Hidalgo, Mexico D.F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mx-ko/index.do
비고	쿠바는 우리와는 미수교국이며, 주 멕시코 한국대사관이 관할

○ 한인후손회관

전화번호	+53 7204-35-24
주소	Calle 7maB y 62, Playa, La Habana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pages/category/Community/%EC%BF%A0%EB%B0%94-%ED%95%9C%EC%9D%B8%ED%9B%84%EC%86%90%EB%AC%B8%ED%99%94%ED%9A%8C%EA%B4%80-1202036569827606/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쿠바상공회의소 Camara de Comercio de Cuba

전화번호	+53 7831-2404, 7838-1321
주소	Calle 21 no. 661 esq. a A, El Vedado, La Habana, Cuba
홈페이지	http://www.camaracuba.cu
비고	사이트 보수작업중

○ 대외무역부 MINCEX

전화번호	+53 7836-9549, 7838-0362
주소	Calle 23 esq Infanta, El Vedado, La Habana, Cuba
홈페이지	http://www.minrex.gob.cu/es/mincex

◦ Procuba

전화번호	+53 7214-4340, 7214-4341
주소	Calle 10 No. 512 e/ 5ta y 31, Playa, La Habana, Cuba
홈페이지	http://www.procuba.cu
비고	대외무역부 산하 무역투자진흥기관

◦ 외교부 MINREX

전화번호	+53 7836-4500
주소	Avenida de los Presidentes y Calzada, El Vedado, La Habana
홈페이지	http://www.minrex.gob.cu/

◦ Granma

전화번호	+53 7881-3333
주소	General Suárez y Territorial, Plaza de la Revolución, La Habana. Cuba
홈페이지	http://www.granma.cu
비고	쿠바 정부 기관지

◦ Cubavision

전화번호	+53 7839-2545
주소	Calle M entre 23 y 21 El Vedado, La Habana
홈페이지	http://www.tvcubana.icrt.cu/
비고	쿠바 정부 방송사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24CUP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	단품	5.000
2	식품	볶음밥	1인분	10.000
3	식품	해물스프	1인분	12.000
4	식품	피자	1판	8.000
5	음료	커피	1잔	3.500
6	음료	생수(마트, 최저가)	350ml	1.000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350ml	1.200
8	의료	항생제	12정	38.000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0.200
10	교통	합승택시요금	기본요금	0.400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5.000
12	서비스	헤어컷(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15.00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1.200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200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0.200
16	여가	담배(Dunhill)	1갑	3.500
17	여가	맥주	360ml	1.500
18	임금	최저임금(쿠바국영기업 근로자)	법정최저(월)	87.500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연간	14500.00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2.250

<자료원 : KOTRA 아바나 무역관>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쿠바는 1994년부터 운영하던 이중화폐제도를 2021년 1월 폐지하며, 쿠바페소(불태환페소, CUP)를 단일화폐로 사용하고 있다.

단지, 2020년 하반기에 도입된 외국환매장 및 일부 지출처 (렌터카 회사, 호텔 등)의 경우 외환(카드) 결제만 가능한 바, 실질적으로는 미 달러, 쿠바페소 등 이중 화폐가 통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미 달러 대비 쿠바페소의 환율은 USD1:CUP24로 고정환율제도를 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부문 및 민간부문에서의 쿠바페소는 공식환율 대비 약 5배 내외의 평가절하되어 거래되고 있다. (2022년 5월 기준)

환전방법

공항, 호텔, 시내에 위치한 환전소(Casa de Cambio)에서 환전한다. 또한 시중은행이나, 호텔 카운터에서도 환전이 가능하다.

단, 쿠바정부의 외화부족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현지화를 미 달러화로 환전하는 것은 불가하다. (2022년 5월 기준)

신용카드 이용

Citibank, American Express 등 미국계 은행이 발급한 카드는 사용이 불가하다.

국내은행에서 발급한 Visa, Master카드 등은 사용이 가능하나, POS 단말기 또는 당일 통신환경 등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신용카드는 호텔 및 외국환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기타 일반 상점이나 식당, 가게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ATM에서 카드로 현금 출금은 가능하다. 해외 사용이 가능한 직불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출국 전 사용국가를 사전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ATM 출금기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현금 인출 시에는 통상적으로 3%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나. 교통

교통상황

쿠바는 대중교통이 상당히 취약한 편이다. 외국인의 경우 시내 이동 시에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시외 이동 시에는 Viazul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택시는 정부택시 (노란색 세단 또는 VAN)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요 관광지에서는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개인택시 기사들의 호객행위가 잦은 편이다.

운임은 흥정 가능하나, 대략적인 시세를 모를 경우 또는 스페인어 구사가 어려울 경우 과다요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잦다.

버스

시내버스는 운행시간이 일정치 않고 운행노선에 대한 안내가 없어 외국인이 이용하기 불편하다.
 도시간 이동 시에는 Viazul 버스를 주로 이용하며, 사전에 승차권 구입이 가능하다.

택시

택시는 일반택시와 합승택시(Colectivo)가 있다. 일반택시는 기본요금이 USD 5 수준이며, 탑승 전에 흥정이 필요하다.
 합승택시는 정해진 노선을 왕복하는 택시로 가격이 저렴하다. 기본요금은 CUP 10(0.40달러)이다.

다. 통신

핸드폰

선불제 핸드폰 번호는 국영통신사(Etecsa)에 CUP 960 (USD 40)을 지불하면 바로 확보할 수 있다.
 SIM카드 비용이 USD 30이며, 실제 사용가능한 금액은 USD 10이다.
 필요시 추가 금액에 대한 충전이 가능하다.

인터넷(와이파이)

2018년 12월, 3G 서비스가 상용화되었고, 2019년 11월 4G 서비스가 도입되었으나, 아직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용료가 비싸다.
 와이파이는 주로 호텔이나 공원 등 wifi존에서 이용하며, 선불카드 구입이 필요하다.
 국영통신사(Etecsa)가 판매하는 wifi 선불카드는 이용료가 1시간에 CUP 24이며, 호텔 또는 국영통신사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라. 관광명소

◦ 바라데로 해변(Varadero)

도시명	바라데로
주소	varadero
운영시간	전일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쿠바의 외국인 관광객 휴양지. 해변을 따라 호텔이 있고, 카리브해의 연녹색 바다색을 볼 수 있음. 쿠바 유일의 18홀 골프장이 있고, 골프장 내에서 혁명 전 미국의 듀폰가(家) 소유였던 별장을 볼 수 있음(동 별장은 관광객용 호텔 및 식당으로 사용 중).

◦ 헤밍웨이 박물관(Finca Vigia)

도시명	아바나
주소	La Finca La Vigia fue la residencia de Ernest Hemingway en San Francisco de Paula, en La Habana, Cuba, posteriormente declarada museo

운영시간	10:00~16:00
휴무일	일요일
명소소개	아바나 시내에서 택시로 20분 정도 가면 미국 소설가 헤밍웨이가 살았던 집으로 1960년 쿠바혁명 이후 헤밍웨이가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음. 타자기, 동물박제, 9000여 권의 장서가 있음.

◦ 호세마르티 기념관(Memorial Jose Marti)

도시명	아바나
주소	Calle Paseo y Ave. Independencia. Plaza de la Revolución. La Habana, Avenida Paseo, La Habana
운영시간	09:00~16:00
휴무일	일요일
명소소개	아바나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호세 마르티 기념탑에는 쿠바의 독립전쟁 영웅 호세 마르티 관련 자료가 전시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아바나 전경을 볼 수 있음.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마. 식당

- 현지식당

◦ 비스타마르(Vistamar)

도시명	아바나
전화번호	537 2038328
주소	Ave 1ra y 22, Playa
가격	1인당 CUP 500
영업시간	12:00~24:00
휴무일	없음
소개	해변가에 위치한 식당으로 경관이 좋음. 해산물 요리가 유명함.

◦ 라 에스페란사(La Esperanza)

도시명	아바나
전화번호	537 2024361
주소	Calle 16 e/ 1ra y 3ra, playa
가격	1인당 CUP 600

영업시간	월~토요일 19:00~24:00
휴무일	일요일
소개	가정집 분위기의 고급 레스토랑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 한국식당
없음.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멜리아 코이바(Hotel Melia Cohiba)

도시명	아바나
주소	Calle 1ra, La Habana
전화번호	+53 7 8333636
홈페이지	https://www.melia.com
숙박료	USD 170
소개	아바나시 Vedado 지역에 위치한 5성급 호텔

◦ 나시오날 호텔(Hotel Nacional)

도시명	아바나
주소	Calle 21 Vedado, La habana
전화번호	+53 7 8363564
홈페이지	https://www.hotelnacionaldecuba.com
숙박료	USD 170
소개	고풍스런 디자인으로 설계된 호텔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호텔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 게스트하우스

◦ 까사 케티(Casa Ketty)

도시명	아바나
주소	Calle 27 No 202 e/ L y K Vedado, Habana
전화번호	52431424

숙박료	USD 50/일
-----	----------

○ 까사 로시(Casa Rosy)

도시명	아바나
주소	Ave 19 No 3015 Playa, Habana
전화번호	53439755
숙박료	USD 50/일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사. 치안

치안상황

시내 곳곳에 경찰이 있기 때문에 대로변은 비교적 치안에 문제가 없으나, 아바나 구시가(Old Havana)는 주간에도 소매치기가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해안도로 Malecon(말레콘) 야간 보행 시 생계형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단신으로 여행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희롱도 종종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거부의사를 단호히 할 것).

응급상황 대처요령

- 교통사고
 - 쿠바에서 개인 명의 차량을 소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 대부분의 출장자는 렌터카를 이용함.
 - 렌터카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해당 렌트카 사무소 및 경찰서(106)를 접촉하여 사고신고 후 보험처리 접수
 - 현지인이 운전 중인 차량에 의한 사고 발생 시 경찰서(106) 및 외국인 전용 병원(Cira Garcia, +53-7204-2811), 앰불런스(104) 등을 연락
- 여권/지갑 분실
 - 여권/지갑 등 분실 시 우선적으로 인근 경찰서에 분실신고 및 신고접수증 수령
 - 쿠바에는 우리나라 공관이 부재하며, 관할 공관은 주 멕시코 대사관이다.
 - 여권 재발급 신청은 KOTRA 아바나 무역관에서 접수 가능
 - 단, 접수된 서류를 주 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으로 전자발송 및 여권발급까지는 1~2일 내 처리가 가능하나, 발급된 여권을 DHL로 수령하기까지 약 7-10일이 소요된다.
- 응급 전화번호
 - 경찰 : 106
 - 앰불런스 : 104
 - 소방서 : 105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거주지의 경우, 외교관이나 기관/기업의 대표자는 반드시 쿠바 정부 부동산 업체가 운영하는 정부 소유 주택 또는 일부 외국인 소유 주택에만 입주가 가능하나, 수요 대비 공급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

특히 거주 환경이 양호한 주택은 대부분 전임자-후임자 간 승계입주를 하거나, 외국기관 명의로 임차하여 사택형태로 운영하는 관계로 일반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집(외국인 기준에서 살만한 집)을 구하기까지 6개월~1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외국기업의 현지 대표자가 아닌 일반직원의 경우, 정부 소유 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의 임차가 가능하나, 2016년 미국과의 수교 이후 해외기업들의 지사 설립 증가 등으로 체류 외국인 수가 늘어나자 주택 월세가 폭등함과 동시에 공급은 거의 증가가 없으므로 주택 입주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아울러, 민간주택에 입주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파견회사의 형태 등에 따라 이삿짐(컨테이너) 수령을 위해서는 정부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바, 주택임차 전 해당 내용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전화

쿠바에서 전화나 인터넷 관련 모든 통신서비스는 에텍사(Etecsa)가 관리한다. 핸드폰의 경우 외국인도 여권을 지참하여 전화번호 발급(심카드 구입)이 가능하다.

전압/플러그

쿠바는 110v와 220v를 혼용하고 있다. 장소에 따라 변환 플러그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지참하는 것이 좋으며, 전력/전압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냉장고, TV 등 고가의 가전제품의 경우 전압안정장치(Regulador)의 사용이 권장된다.

식수

물은 반드시 생수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수퍼, 주유소 등). 부득이하게 수도물을 이용한다면 끓여서 마셔야 한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일반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CIMEX, SASA 등 수입권한이 있는 지정 국영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차량가격

쿠바에서 자동차 수입은 정부지정 국영기업만 수행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격도 정부가 책정한다. 신차의 경우 소비자가격은 수입가격의 800% 이상에 달해 일반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도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일례로, 산타페 2,000cc 차량의 경우 소비자가격은 35만 달러에 달한다.

중고차의 경우도 시장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 주요 국산 차량의 가격은 아래와 같다.

- 현대 싼타페 (2017년식) : USD 72,000
- 현대 투싼 (2017년식) : USD 55,000
- 현대 쏘나타 (2017년식) : USD 60,000
- 기아 피칸토 (2017년식) : USD 38,000

아울러, 일반인에게 판매되는 중고차량은 국영 렌터카 회사에서 관리하던 임차차량으로, 대부분의 경우 높은 마일리지 및 부실한 관리 등으로 인해

실제 인수 후에도 개별적인 수리 및 부품 조달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국영 렌트회사에서 임차를 할 경우 2,000CC 승용차의 월임차료는 USD 2,500~3,000 정도에 이르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쿠바에서 운전하는 데 문제가 없다.

단,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거주(거주증 발급시)할 경우, 쿠바 운전면허증 발급이 필요하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일반인들이 개인계좌를 개설 시에는 주로 Metropolitano, BPI(Banco Popular de Ahorro)를 이용한다.

기업(상업)용 계좌는 BFI, BICSA, BNC, BEC 등 은행이 있다.

계좌 개설방법

쿠바인 및 거주증을 가진 외국인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인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구비 서류 : 신분증 또는 여권
- 계좌 종류 : 쿠바화폐(CUP) 및 외화화폐(USD) 계좌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o International School of Havana

도시명	아바나
커리큘럼	유치원~고등학교

학비	◦ 입학금 : 4,000달러 ◦ 수업료 - 유치원~grade 5 : 12,195달러 - grade 6~8 : 12,345달러 - grade 9~10 : 13,975달러 - grade 11~12 : 14,385달러
홈페이지	http://www.ishavana.org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 현지학교

◦ Escuela Preuniversitaria Lenin IPVCE

도시명	아바나
커리큘럼	고등학교
학비	쿠바인은 무료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마. 병원

◦ Clinica Central Cira Garcia

도시명	아바나
주소	Ave. Lazaro e/ 18 y 20, Pya, La, C´rdenas, La Habana
전화번호	537 204281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외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병원임

◦ Hospital Hermanos Ameijeiras

도시명	아바나
주소	Calle San L´zaro # 701 esq. a Belascoaín, Centro Habana, La Habana
전화번호	537 8761210
진료과목	종합병원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물/백화점

◦ Tiendas por Departamentos Carlos III

도시명	아바나
주소	Avenida Salvador Allende, La Habana, Municipio Plaza
홈페이지	http://www.carlostercero.ca

◦ Tiendas por Departamentos La puntilla

도시명	아바나
주소	Ave 1ra e/ A y B playa, La Habana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 식품점

◦ Centro Comercial 3ra y 70

도시명	아바나
주소	Avenida 3ra y calle 70, Playa
취급 식료품	식품 전반

◦ Centro Comercial Ditta

도시명	아바나
주소	Calle 84 entre 7ma y 9na, Playa
취급 식료품	식품 전반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 기타 편의시설

◦ Varadero Golf Club

도시명	바라데로
주소	Autopista Sur, Varadero
홈페이지	https://www.varaderogolfclub.com
소개	쿠바의 유일한 18홀 골프장으로 국제적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

◦ Marina Hemingway

도시명	아바나
-----	-----

주소	'Calle 248 y 5ta Ave, Marina Hemingway, Playa
홈페이지	http://www.hemingwaycuba.com/
소개	보트, 낚시, 수영, 스킨스쿠버 등의 여가를 즐길 수 있음.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시작일	종료일
혁명승리기념일	2023-01-02	2023-01-02
혁명 65주년 기념일	2023-01-03	2023-01-03
성금요일	2023-04-07	2023-04-07
크리스마스	2023-12-25	2023-12-25
혁명기념일	2023-07-27	2023-07-25
독립기념일	2023-10-10	2023-10-10
노동절	2023-05-01	2023-05-01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10. KOTRA 무역관 안내

◦ 아바나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Avenida 3ra, e/.76 y 78, Edificio Santa Clara, Oficina 412, Miramar Trade Center, Habana, Cuba
- 전화: (53-7) 204-1020, 1117, 1165
- 팩스: (53-7) 204-1209

공항-무역관 이동

공항에 도착하면 입국수속을 마친 후 환전소(Cadeca)에서 환전을 한 후 택시를 이용한다. 공항에서 무역관까지 택시요금은 약 USD 40 수준이다.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